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교사헌신예배 / 교육부서 교사 일동

2025년 7월 27일(오늘) 오전 11시 예배는 교사 헌신의 주일로 지킵니다.

3. 첫날맞이 월삭예배 / 성찬예식

2025년 8월 1일(금) 새벽 5:30 첫날맞이 월삭예배가 있습니다.

4. 구역예배

2025년 7월 31일(목) 오후 2시 이가을 권찰님 댁에서 진행합니다(교회).
(다음 모임 : 임명자 권사님 사업장 - 에마농카페 오전 10시)

5. 주일 오후 소그룹 교제

오늘부터 오후예배 소그룹 교제는 <토티 - 나는 예배자>입니다. 진도는
중고등부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6. 성도동정 (건강, 안전, 평안, 행복, 사명, 신앙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오현진(군복무), 이다남(노환), 박영대(노환), 임명순(발목 허리 인대 회복),
김혜숙 권사(디스크 협착증), 정현숙 권사(수면), 김옥화 집사(평안, 가족),
김강준 어린이(치유와 회복, 심리적 안정), 김주형(사업), 한효성(직장)
한인혜(직장) 정청재(공항장애, 믿음), 박제연(치유, 홈스쿨), 박태성(청력),
강선주(사업, 가족, 8월국내단기선교) 최귀순(백내장 수술 회복, 관절)
김민철 목사(유명한교회, 폐암) 임진관(중앙효양병원-회복), 이상민(평안)
손준경(평안) 장사라(전도-이옥성, 장세규, 장세경, 최란희, 장연우, 장지우, 장은비)

8. 2025년 8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윤-6.8 ~ -7.9)

08/01(금)-박시하 어린이 08/04(월)-서 봄 학생 08/09(토)-이광근 안수집사
08/12(화)-고은지 자매 08/11(월)-김차린 자매 08/18(월)-장사라 집사
08/26(화)-신미경 집사(-7.4) 08/26(화)-이상민 형제 08/27(수)-강민지 학생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7/27 박제연 집사
8/03 이광근 안수집사
8/10 임명자 집사
8/17 임명숙 집사
8/24 김혜숙 권사
8/31 정현숙 권사
9/07 박제연 집사

교육과 수련의 달

행사계획

날짜	행 사 내 용
07/27	교회학교 교사 헌신예배
28~30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드림캠프) 평택 더인더호텔
28~30	중고등부 수련회 (성령캠프) 신길교회
08/01	첫날맞이 월삭예배(성찬예식)
08/03	청소년청년 헌신의 주일
08/10	해방기념주일
08/14	교사 수련회(여름사역 평가 헌신)
08/17	여름사역보고(교육기관, 홈스쿨)
08/24	학원선교 파송의 주일
08/31	선교헌신예배(모로코)
09/01	첫날맞이 월삭예배(성찬예식)
01~06	교역자 가정 하계 휴가

주일 사랑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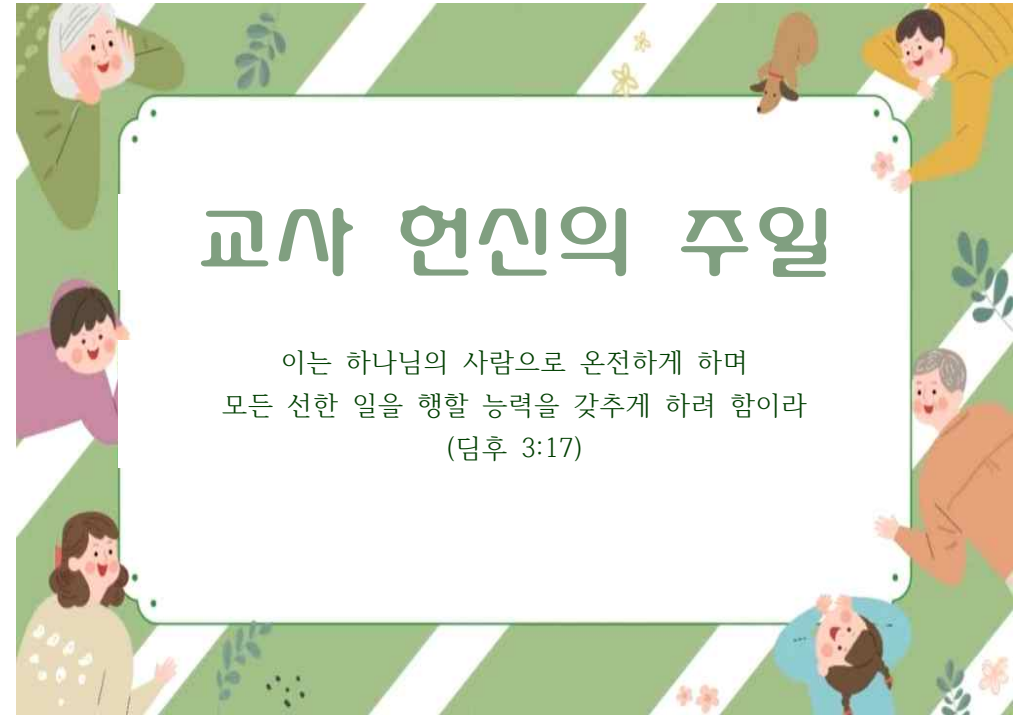
요일	운 행 안 내
주일	교회출발(9:45) ▶ 탐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탐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부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당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당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당 후 진행)		



주사랑 8권 30호 | 2025년 7월 27일
창립 2017.11.25 | 생령후임계주일/교역자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답후 3:17)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①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③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④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⑥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⑦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⑧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교회학교 교사 헌신의 주일) 사회: 이광근 집사

- ※ 목 도 시편 100:1~3 인 도 자
- ※ 찬 송 가 찬 1장 다 같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 ※ 사도신경 다 같 이
-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 성시교독 No.1 시편 1편 인도자/회중
- 찬 송 가 찬 210장 다 같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
- 대 표 기 도 박제연 집사
(교회학교 교육부장)
- ※ 성 경 봉 독 디모데후서 3:14~17 (신 346) 정현숙 권사
(교회학교교사/중보팀)
- 특 송 나는 주를 생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 광 고 인 도 자
- 말씀인도 좋은 스승이 되주세요 담 임 목 사
- 봉 헌 특 송 클라리넷/사명 한희락 학생
(헌금위원 : 임명숙 집사) (종교등부 부장)
- ※ 축 도 담 임 목 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언금은 언금함에 미리 넣어주세요 / 기탁일: 2025.07.26.)

- 십 일 조 : 박태성 문동진 임명자 장사라 정현숙 한승훈 임명순 / 오동영 임명숙
- 주정현금 : 강선주 김혜숙 문재효 박제연 오동영 임명숙 이광근 임명순 임명자
정현숙 한승훈
- 감사헌금 : 강선주 박제연(생일) 이광근 박제연(자녀) 전복순 한승훈 임명순
한승훈 임명순(청소년헌신) 무명1 / 김혜숙(삼방) 함솔희
- 교회학교 : 이재아 이재우 이재희 임명순 한성결 한은총 한태민 한희락
- 구역헌금 : 김혜숙 박제연 한승훈 임명순
- 선교헌금 : 김혜숙 한태민 / 조형재(수원순복음)
- 건축헌금 : 정청재 정현숙 한인혜 한정일 한태민 한효성
- 여름캠프 : 신은영(인양중앙) 무명1
- 후원헌금 : 세한교회 안양중앙교회 오복상 방애경 / 대흥교회(기은정)
- 성미헌금 : 조형재(수원순복음)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주일 기관별 소그룹

오후 1:00 임명순 사모
대표기도 말 은 이
성경봉독 요한복음 4:16-32 (신 147)
말씀제독 하나님 찾오시는 예배자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요 기도회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창세기 18:16-32 (구 22)
말씀제독 한 영혼을 위한 부르짖음

가정·구역예배(목)

오후 2:00 김혜숙 권사
성경봉독 열왕기하 6:1~14 (구 569)
대표기도 박제연 집사
말씀제독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6)

심야기도회(금)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골로새서 2:6~19 (신 326)
말씀제독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새벽 기도회

새벽5:30 로마서강해(월~금)
27일(일) 출 2:23-25 신실하신 하나님
28일(월) 출 3:1~12 100년을 기다린 기도응답
29일(화) 출 3:13-22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
30일(수) 출 4:1-9 가적을 경향하는 순종
31일(목) 출 4:10-17 자광이와 말씀의 손에 잡고
8월1일(금) 출 4:18-26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⑥ 선지자 요엘은 유다 백성이 삶이 풍성해지면서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했고, 여호와와 신앙의 명맥을 갖고 유지하면서도 자기중심적 신앙, 우상 숭배, 갖은 죄악으로 돌아선 이유를 이것의 실패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을 1:2~3)

늙은 자들이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이다 땅의 모든 주민들이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에게 말하고 ()는 ()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에 말할 것이니라

⑦ 선지자 요엘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남 유다 왕국 또한 때뚜기 때가 지나간 후의 황폐함처럼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엄히 경고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요엘은 무엇이라고 불렀나요?(을 1:15)
슬프다 그 날이여 ()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 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니라

⑧ 선지자 요엘은 비록 심판 직전이지만,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속히 무엇을 결단하라고 남 유다 백성에게 촉구하나요? (을 2:12~14)
여호와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 () 하셨나니 너희는 ()을 찢지 말고 ()을 찢고 ()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⑨ 선지자 요엘은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남 유다 백성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을 2:18)
그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을 극진히 ()하시어 그의 ()을 () 여기시킬 것이라

⑩ 선지자 요엘은 남 유다 왕국의 진정한 회개를 이룰 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나요? (을 2:28~32)
그 후에 () 너희 자녀들이 ()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는 () 이는 나 여호와와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시키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환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드립니다)

국선교(오주교후포소)를



해외선교(모로코)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기타 기관 선교

오른포도어선교회 한국북한선교연구원
모퉁이돌선교회 한국성결신문
한국장애인선교회 한국장애우교육마을

- ① 호세아 선지자는 한때 북 이스라엘을 대표했을 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파가 우상 숭배로 영적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흩어진 지파에 주목합니다. 과거의 위대함이 미래의 위대함을 보장하지 않는 교훈을 주는 이 지파와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무엇일까요? (호 13:1~2)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로 말미암아 범죄하므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식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 ② 북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풍족하여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느끼게 되자 가장 중요한 이것을 버리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무엇인가요?(호 13:4~6)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하여
이로 말미암아 ()

- ③ 호세아 선지자는 범죄로 징계를 앞둔 북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라도 즉각적인 용서와 화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호소하나요? (호 14:1~2)

이스라엘아 ()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를 주게 드리리이다

- ④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약할 때,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 죄책감을 시달릴 때, 가족과 친구들이 나를 버릴 때, 직장 동료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배신 당했을 때,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칠 때, 의의 길을 따를 용기가 없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 앞에 두려울 때, 무엇을 의지하라고 권면하나요? (호 14:3~4)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이니라

- ⑤ 엘리사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로 “여호와와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유다 지파의 예언자이며 “여호와와 심판의 날”의 절대적인 공의와 주권을 강조한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율 1:1)

브두엘의 아들 ()에게 임한 여호와와 말씀이라

교사 헌신의 주일 - 진정한 교육은 작은 배려로부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0)

스위스 취리히의 슈타인거리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길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워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노인의 태도를 유심히 살핀 후 수상쩍어서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줍고 있습니까, 습득물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계시겠지요?”

노인은 경찰관에게 잔잔한 미소를 보내며 대답했습니다.

“별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시지요”

경찰은 노인의 주머니를 강제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은 온통 유리조각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 유리조각을 밟아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은 노인에게 다시 물었다.

“노인은 누구신가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다.

“저는 조그마한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노인이 그 유명한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요한 하인리히 페스탈로치(Johann Heinrich Pestalozzi, 1746.1.12~1827.2.17)입니다. 서양에서는 스승과 성직자와 아버지라는 말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아버지(Father)라는 말속에는 모든 의미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사랑은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페스탈로치는 노이호프에서는 빈민의 구원자, 린하르트와 게르트루트에서는 민중의 목자, 슈탄츠에서는 고아의 아버지, 부르크도르프와 뮌헨부흐제에서는 새로운 민중학교의 창설자, 이벨당에서는 인류의 교사, 인간, 그리스도인, 참 시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페스탈로치 묘지 비문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남을 위해 바치고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그의 이름 위에 축복이 있기를!”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운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예배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사도신경	다	같이	852	엘리아 승천과 엘리아 승계	왕하 2:1~14
찬송가	찬 214장	다	같이	엘리아의 사역 시작	왕하 2:15~25
대표기도	박제연 집사	다	같이	아합의 아들 요람(여호람) 등극	왕하 3:1~12
성경봉독	왕하 6:1~14	독		자식을 잃게 된 여인을 도움	왕하 4:1~7
말씀인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주(6)	윤은이		자식 없는 여인을 도움	왕하 4:8~37
합심기도	다	같이		독성이 강한 우물을 고치심	왕하 4:38~44
헌금기도	찬 212장	말은이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심	왕하 5:1~27
주기도문	다	같이	848	쇠도끼 사건과 아람과의 전쟁	왕하 6:1~14

■ 들어가는 말

참 스승이었던 선지자 엘리아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던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거처할 곳이 비좁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여 요단 근처에 새로운 숙소와 거처를 지으려고 스승에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많은 인원과 비용과 헌신과 노력이 소비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스승인 엘리아는 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이해하며 허락합니다. 이때 나무를 자르던 어떤 제자가 실수를 범합니다. 빌려온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좋은 스승인 엘리아는 걱정과 절망으로 통곡하는 제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좋은 스승인 엘리아는 쇠도끼가 떠오르게 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아람 왕국 사이에 전쟁의 기운이 돌았습니다. 엘리아는 매번 아람 왕의 계획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귀뜸 해 주었는데, 아람 왕은 이를 알아 엘리아를 잡으려 도단 성읍을 둘러쌌습니다. 직접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영적 스승으로서의 엘리아는 하나님의 통찰과 능력으로 알아낸 위기 상황을 그때마다 왕에게 이 사실을 아뢰입니다.

여름성경학교, 청소년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사 헌신의 주일>을 지내는 동안, 우리는 참된 스승으로써 제자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어떻게 나타내 보여야 할까요?

첫째, 제자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1~3).

선지자를 따르던 제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공동생활을 하던 공간이 비좁아졌습니다. 제자들은 요단 지역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로 합니다(1). 제자들은 엘리아에게 거처 이전 허락을 받고 그에게 동행해달라고 부탁합니다(2). 이들이 새로운 처소를 지으려고 했던 요단은 서쪽으로 8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스승이었던 선지자 엘리아는 현재 여러 지역을 순회 하며 부흥 사역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일정 기간 제자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 매우 부담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스승이었던 엘리아는 제자들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들어주며 공사현장에 함께 지내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기로 결정합니다(3). 좋은 스승은 제자들과 시간과 삶과 책임을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와 스승 사이에 권위와 책임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점에서 참 스승이신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막 3:13~15). 제자와 시간을 함께 함으로 영생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새워가는 존귀한 일에 좋은 스승인 우리는 “바쁘다는 일상”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직 미숙한 제자들과 함께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도와주세요.

둘째,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4~7).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아의 제자들은 빌린 쇠도끼로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들보를 세우기 위해 큰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게 됩니다(5). 도끼가 물에 빠진 것도 문제지만, 이 쇠도끼가 빌려온 것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5). 이 제자들은 쇠도끼 하나 소유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한 삶을 살았음을 입증합니다. 제자들은 “아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짜아크)은 황망하여 절규하고 울부짖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은 스승 엘리아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국에 독이 든 것을 안 제자들의 부르짖음도(4:40), 생활고에 빠진 과부가 엘리아에게 부르짖음도(4:1)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주사랑교회 선생님들을 찾아 도움을 청하고 있는지요? 선생님들은 제자들의 도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겸손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좋은 스승이었던 엘리아는 제자들이 알려준 장소로 직접 찾아갑니다. 엘리아는 나무를 잘라 물에 던졌고 놀랍게도 쇠도끼가 떠올랐습니다(6). 이는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스승인 엘리아는 도끼를 집어들리라고 했고, 제자들은 스승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문제를 해결 받습니다(7).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아의 능력을 나아만 장군과 같은 대단한 인물을 위해서만 쓰시지 않으십니다. 한낱 도끼를 찾는 일에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께 아뢰는 일상 속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해야 합니다.

셋째, 나라와 민족의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 돕는 영적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8~14).

평소 하나님은 엘리아를 통해 아람으로부터 불순종하는 백성이었지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아를 통해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을 미리 알려서 방비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10). 이스라엘의 침공을 위한 아람 왕의 계획이 번번이 탄로가 나자 내부 첩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11). 하지만 곧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아의 능력 때문임을 알고는 엘리아를 체포하도록 명령을 지시합니다. 아람 왕은 엘리아가 도단에 있음을 알고 그 성읍 전체를 포위했습니다(14). 아람의 왕과 군대는 말과 군사와 병거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 에워싸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승승장구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반발과 시기도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미 아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엘리아를 도와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게 합니다. 스승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미리 알고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 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렘 9:23~24).

■ 결론

좋은 스승은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크고 작은 일의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높고 낮은 사람의 구분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곤경을 해결하기도 하고 나라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단번의 기적으로 끝내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돕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좋은 스승은 교리와 지식만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섬김과 순종의 헌신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사람입니다.